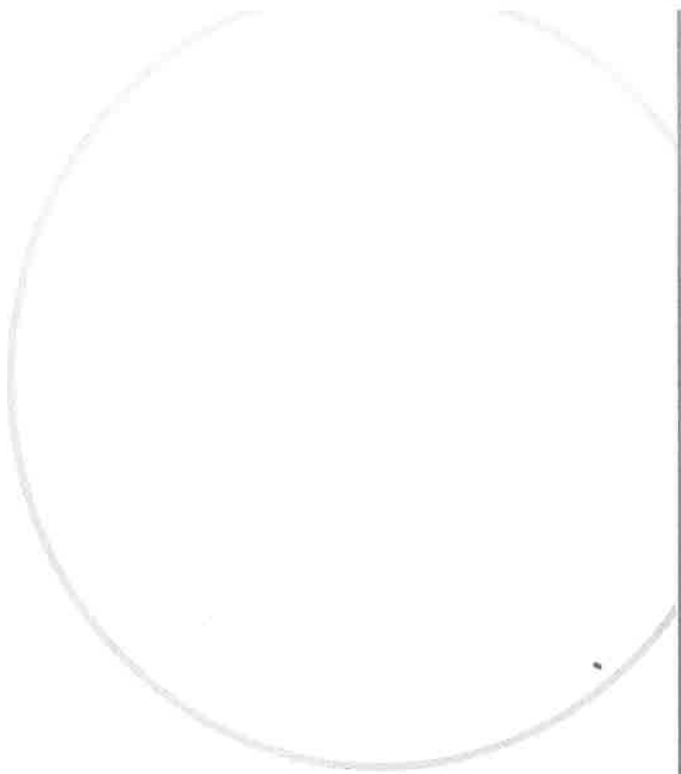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지문 분석

국어 영역

- ③ 지원 문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인용하여 지원자의 잠재력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지원 분야에 대한 지원자의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지원자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활용하여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드러내고 있다.

6. <보기 2>는 면접 대상자의 사교 과정 중 일부이다. <보기 1>을 참조하여 [A]~[C]에 대한 질문 분석과 답변 전략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면접은 직무를 통해 면접 대상자의 지식, 상부,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공적 대화이다.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변하기 위해 면접 대상자에게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답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교의 과정이 요구된다.

질문 분석	답변 전략
㉠ 자기소개서에 더 제시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된 질문을 요구하는군.	㉡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한 내용을 제시된 상황에 적용하여 답변해야겠군.
㉢ 지원 분야의 필요성에 대해 근거를 들어 답할 것을 요구하는군.	㉣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한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답변해야겠군.
㉤ 지원 분야의 관련된 상황 문 제시하며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군.	㉥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어 답변해야겠군.

질문 분석	답변 전략
① [A]	㉠
② [A]	㉡
③ [B]	㉢
④ [B]	㉣
⑤ [C]	㉤

④ 직영유형 - 지원원(실용) 문제제기 - 원인분석. → 해결방안 제시.

2. 구성

1. 주제, 서제, 본문, 결론. → 학생 전문성에 대한 설명.

정리가 필요함.

7. (나)에 나타난 면접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면접 대상자는 '면접자에게 되묻는 방식'으로 질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 ② '면접 대상자는 '면접자와의 견해 차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③ '면접자는 '면접 대상자의 답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 ④ '면접자는 '면접 대상자의 답변 내용을 요약하며 재진술하고 있다.
- ⑤ '면접자는 면접의 도입부에 '면접 대상자의 긴장을 풀어 주는 말을 하고 있다.

3 / 16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견의문] 작성하기
 ○ 예상 독자: ○○시청 시내버스 운행 정책 담당자

[화형의 초고]
 / 안녕하세요? 저는 'A 단지'에 사는 □□고등학교 학생 ○○○입니다. 제가 어떻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시내버스 노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A 단지 학생들을 대표하여 개선 방안을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2. 우리 시의 고등학교들은 시내에 위치한 반면 2016년 2월에 생긴 A 단지는 시 외곽에 있어 이곳에 사는 많은 학생들은 시내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대기용을 이용할 때보다 30분 이상 시간이 더 걸립니다. ○번 버스의 경우 A 단지를 지나 시청, 버스 터미널, 중앙 시장 등 시내 주요 장소뿐만 아니라 여러 곳을 경유하여 □□고등학교에 이릅니다. 시내 고등학교들로 향하는 다른 노선들도 상황은 이와 유사합니다. 통학 시간이 길어서 아침부터 피곤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졸게 되는 등 학업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시내버스를 기피하게 되고 부모님의 자기용을 이용해 통학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학교 주변의 교통이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가 생긴 원인은 A 단지에서 고등학교들로 향하는 시내버스 노선들이 시내의 너무 많은 정류장을 경유하기 때문입니다.

3.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관객 전용 노선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이란 통고 시간에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으로, A 단지에서 출발해서 거점 정류장만을 경유하여 시내 고등학교까지 최단 경로로 운행하는 노선을 말합니다. 급행 노선의 신설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하여 인정한 고등학교들을 묶어 하나의 노선으로 정하고 A단지 이외의 학생들이 많이 타는 곳을 거점 정류장으로 정비하면 될 것입니다.

4. 제 건의 내용이 반이들어진다면 □□□□

8. '학생의 초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건의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위자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 ② 건의 내용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해결 방안의 현재점을 검토하고 있다.
 - ③ 건의 내용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비교하고 있다.
 - ④ 건의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상되는 부분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⑤ 건의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문양 분석

- 6. 직능 → 답변전략!
- 7. 변경의 의사소통 방식. (문-답) → K06B 1번이상 유사함!
- 8. 견해 → 설득전략. <계획책> <신뢰성, 타당성, 간결성, 공정성, 신뢰가능성> → 이 주는 최선의 설득 전략 (문, 예설)과 같음! → 비표적 스테레오 활용함!

4

국어 영역



지문 분석

9. 선생님의 조언을 고려할 때, ㉔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전의문의 끝 부분은 전의가 받아들이었을 때 전의 주체에 대응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다른 사람들의 계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제시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어요.

㉑ 수요 조서에 따른 버스 운영으로 시내버스 회사의 이익 창출에 기여하며, ○○지도 시내버스 운영 지원비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㉒ A단지 학생들이 겪는 등굣길 버스 이용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단지 학생들의 아침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㉓ A단지의 학생들의 등굣길 스트레스를 줄여 줄 수 있으며, 여유롭게 등교할 수 있게 되어 A단지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㉔ 학생들의 자기용 통학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자녀들을 데리다 주지 않아도 되어 학부모들이 여유로운 아침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등굣길 통학 시간으로 인한 A단지 학생들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어 학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학교 주변 교통 혼잡을 해결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조그맣게 보인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료>

(가) 인터뷰

"학교까지 가는 버스가 너무 많은 곳을 들어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찍 집을 나서야 되고, 종종 아침밥도 못 먹고 간 배가 있어요."

- □□고등학교 학생-

(나) 'A단지' 고등학교생들의 등교 수단 이용률

등교 수단	자기용	시내버스	기타
조사 시점			
2016년 6월	25.2%	66.7%	8.1%
2016년 12월	44.4%	47.8%	7.8%
2017년 6월	53.2%	38.5%	8.3%

- □□고등학교 학생자치회-

(다) 신문 기사

스승이가 3월부터 고등학교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을 본격적으로 운행하였다. 등교 급행 노선은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통학생들이 집중된 지역에서 학교까지 일부 정류장만 경유하여 운행하는 것으로 기존 40분대 통학 시간을 20분대로 줄였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로 통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급행 노선 운행 전보다 증가하였다.

㉑ (가)의 학생 경험을 제시하여 등굣길 시내버스 노선 문제의 실태를 보여 주어야겠다.

㉒ (나)의 시내버스 이용률 변화 추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시내버스 기피 원인이 쇠퇴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겠다.

㉓ (가)와 (나)를 활용하여 자기용 이용률 증가가 시내버스 이용 불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겠다.

㉔ (나)와 (다)를 활용하여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이 자기용 이용률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해야겠다.

㉕ (가)와 (다)를 활용하여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이 학생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겠다.

[1~12] 다음을 읽고 들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인공위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요? 그런데 '인공위성'은 옛날에는 쓰이지 않았던 말입니다. '인공위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게 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행성의 궤도를 도는 인공적 물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물체를 가리키는 말이 필요해서 '인공위성'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학생 1: '인공'과 '위성'을 합쳐 만든 것입니다.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인공위성'이라는 말을 만든 것처럼 새 단어를 만드는 원리를 알아볼 텐데, 그중에서도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합성 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합성 명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학생 2: 선생님, 합성 명사는 **명사의 명사가 합쳐진 말** 아닌가요?

선생님: 네, 그런 경우가 많지요. 예를 들어 '난민, 불교개척법 명사'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밖에 **운명의 활용형이 명사와 결합한 '건설물, 노립수, 참여력'과 같은 경우도 있고 '체색시치림 명사를 꾸며 주는 관형사가 앞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 3: 그런데 선생님, 만들어진 합성 명사들을 보니 뒤의 말이 모두 명사네요?

선생님: 그래요. 우리말에서 합성어의 품사는 뒤에 오는 말의 품사와 같은 것이 원칙이에요. 앞에서 말한 예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명사가 아닌 품사들뿐만 이루어진 합성 명사도 있답니다.**

학생 4: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생각해 보니 요즘 자주 쓰는 말들은 그런 방식과는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인간'이라는 말은 '인터넷'과 '강의'가 합쳐지면서 **들어온 말인데, 앞말과 뒤말의 첫 음절만 따서 만들어진 것이예요. 또한 '쌍둥이'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쌍자'인은 '쌍둥이'와 '원시인이 합쳐지면서 들어온 말인데, 앞말의 첫 음절과 뒤말의 둘째, 셋째 음절을 따서 만들어진 것이예요.**



문항 분석

9. <표현체>: ㉑ a: 견제, b: 다른 사람들에게도

10. <내용생성>: 역사 선택지에 정답이 많았기 때문 → ㉑ ㉒ 번 배운 ㉓ 번부터 국어는 시간 부족

㉓ 인과관계 오류 → (가) 반보편 → (나) 저비용 이용률 ↑

지문분석

11. **권위분석** **관형명사**
 권위만

- 7. 권위 + 중심 + 부수인반
- 8. 피생어 (개-접사)
- 9. 앞 참조전 + 뒤 참조전
→ 줄임말
- 10. 참조전 존재전 반
→ 존인반
- 11. 명사 + 명사
→ 관형명사

- 12. 문사 이해
- 13. 잘 (부사) + 못 (부사)
- 14. 새 (관형사) + 것 (피동명사)
- 15. 요 (관형사) + 사이 (명사)
이름 낱말이어야거나
개형개 이란 말 (= -도)
- 16. 앞 (명사) + 난 (명사)
- 17. 갈리 + -고 + 길 (명사)
(중사에 명사형)

- 18. 대명사 - 위격의 쓰임
→ 문법 적인 관에서 관형명사
19. 나칭 20. 수반 21. 배경, 사인
22. 수반 23. 새, 배경
24. 수반, 배경, 사인

문양분석

- 14. 문제어
- 15. 문제어
- 16. 문제어
- 17. 문제어
- 18. 문제어
- 19. 문제어
- 20. 문제어
- 21. 문제어
- 22. 문제어
- 23. 문제어
- 24. 문제어
- 25. 문제어
- 26. 문제어
- 27. 문제어
- 28. 문제어
- 29. 문제어
- 30. 문제어
- 31. 문제어
- 32. 문제어
- 33. 문제어
- 34. 문제어
- 35. 문제어
- 36. 문제어
- 37. 문제어
- 38. 문제어
- 39. 문제어
- 40. 문제어
- 41. 문제어
- 42. 문제어
- 43. 문제어
- 44. 문제어
- 45. 문제어
- 46. 문제어
- 47. 문제어
- 48. 문제어
- 49. 문제어
- 50. 문제어
- 51. 문제어
- 52. 문제어
- 53. 문제어
- 54. 문제어
- 55. 문제어
- 56. 문제어
- 57. 문제어
- 58. 문제어
- 59. 문제어
- 60. 문제어
- 61. 문제어
- 62. 문제어
- 63. 문제어
- 64. 문제어
- 65. 문제어
- 66. 문제어
- 67. 문제어
- 68. 문제어
- 69. 문제어
- 70. 문제어
- 71. 문제어
- 72. 문제어
- 73. 문제어
- 74. 문제어
- 75. 문제어
- 76. 문제어
- 77. 문제어
- 78. 문제어
- 79. 문제어
- 80. 문제어
- 81. 문제어
- 82. 문제어
- 83. 문제어
- 84. 문제어
- 85. 문제어
- 86. 문제어
- 87. 문제어
- 88. 문제어
- 89. 문제어
- 90. 문제어
- 91. 문제어
- 92. 문제어
- 93. 문제어
- 94. 문제어
- 95. 문제어
- 96. 문제어
- 97. 문제어
- 98. 문제어
- 99. 문제어
- 100. 문제어

국어 영역

11. <보기>의 ㄱ~ㄴ 중 앞글에서 설명한 단어 형성 방법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신생남'을 줄여서 '생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2. '개'와 '삼구'를 결합하여 '개삼구'라는 말을 만들었다.
 3. '시법'과 '대학'을 결합하여 '사대'라는 말을 만들었다.
 4. '결정다'라는 형용사로부터 '결정'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5. '비밀'과 '영면'을 결합하여 '비밀영면'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1. ㄱ, ㄴ
 2. ㄴ,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ㅁ
 5. ㄴ, ㄷ, ㄹ, ㅁ

12. 밑줄 친 단어 중 ㉠의 예로 적절한 것은?

1. 자기 잘못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2. 언니는 가구를 전부 세것으로 바꿨다.
 3. 아이가 요사이야말로 물리보게 훌쩍 컸다.
 4. 오늘날에는 교육에서 창의성이 중시된다.
 5. 나는 갈릴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13. <보기>의 밑줄 친 상황에서 ㉠~㉣가 가타미는 대상이 같은 것끼리 바르게 짝지은 것은?

1. (수반) 나칭. 세운이 대화를 하고 있다.
 2. 수반: 나칭이, 머리카락 못 보면 기네, 예쁘다.
 3. 나칭: 코마워, ㉠우리 엄마가 얼마 전 새로 생긴 선물 가게에서 사 주셨어.
 4. 세운: 너희 어쩌니 잘 자상하시네. 나도 그런 머리핀 하나 사고 싶는데 ㉡우리 셋이 지금 사러 갈까?
 5. 수반: 미안해. 나도 같이 가고 싶는데 ㉢우리 집에 일이 있어 못 갈 것 같아.
 6. 세운: 그래? 그럼 할 수 없네. ㉣우리끼리 가지, 뭐.
 7. 나칭: 그래. 수반이. 다음엔 꼭 ㉤우리 다 같이 가지.

14. <보기 1>의 중세 국어의 특징을 바탕으로 <보기 2>의 ㉠~㉣를 탐구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학생들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게 않은 것은? [3점]

1.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에서 쓰이는 종결 어미가 서로 달랐다.
 2. 체언에 결합하는 조사의 형태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정되었다.
 3. 높임의 호격 조사로서 원래 국어에 없는 형태가 있었다.
 4. 신어말 어미의 결합 순서가 원래 국어와 다른 경우가 있었다.
 5. 들은 이를 높이기 위한 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1. 모습 머물 너럭노보 [무슨 말을 만하느냐]
 2. 저으며 늘구미 잇는너 [왜으며 늙음이 잇는냐]
 3. 虛空과 버들 보더서니 [허공과 버들 보시더니]
 4. 批發하 내 활중에 이셔 묻겨 如來 보습고 [세존이시여, 내기 집 안에서 먼저 여래 뵈고]

15. 밑줄 친 말에 주목하여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의 '나'는 '노'와 ㉡의 '잇는너'를 비교해 보면, ㉢을 확인할 수 있으나 수 있다.
 2. ㉡의 '마'와 ㉣의 '버'를 비교해 보면, ㉤을 확인할 수 있으나 수 있다.
 3. ㉢의 '뱀'과 ㉣의 '뱀'을 보면, ㉥을 확인할 수 있으나 수 있다.
 4. ㉣의 '보'와 ㉤의 '보'를 보면, ㉦을 확인할 수 있으나 수 있다.
 5. ㉤의 '보'와 ㉥의 '보'를 보면, ㉧을 확인할 수 있으나 수 있다.

1. 거기에 눈이 왔었다 / 지금 거기에 눈이 오겠지.
 2. 그가 집에 갔다 / 막차를 놓쳤으니 나는 집에 다 갔다.
 3. 내가 떠날 때 비가 올 것이다 / 내가 떠날 때 비가 왔다.
 4. 그는 지금 학교에 간다 / 그는 내년에 진학한다고 한다.
 5. 오늘 보니 그는 키가 작다 / 작년에 그는 키가 작았다.

16. <보기 1>의 중세 국어의 특징을 바탕으로 <보기 2>의 ㉠~㉣를 탐구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학생들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게 않은 것은? [3점]

1.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에서 쓰이는 종결 어미가 서로 달랐다.
 2. 체언에 결합하는 조사의 형태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정되었다.
 3. 높임의 호격 조사로서 원래 국어에 없는 형태가 있었다.
 4. 신어말 어미의 결합 순서가 원래 국어와 다른 경우가 있었다.
 5. 들은 이를 높이기 위한 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6

국어 영역

16~17의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 미술관에서 오랫동안 옮겨지지 않고 서 있는 판화의 작품의 부위를 본다면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그것이 미술 작품이라는 것을 알면 놀랄 것이다. **원시** 원시에 존재하는 것은 실재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하는 유려를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한다.

17. 판화 제작법 중 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코르넬 **원시성**이 높다고 하고 그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 쓸 기법에 **선경성**이 높다고 한다. 판화의 원시성과 표현의 사실성을 모두 추구한 하이퍼리얼리즘은 원시 리얼리즘 경향에 **반대**는 **리얼리즘**과 비교하면 그 특징이 잘 드러난다. 이들은 1930년대 미국에서 발달하여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는 유려로, 당시 **구분주의** 사회의 인상의 묘수를 대차 **으로** 삼은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원시**는 대상을 환상적으로 변형했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원시**는 주로 대상의 원시성을 추구하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의 원시성뿐만 아니라 **드루프르유**의 호미를 **하이퍼 리얼리즘**의 사실성도 추구한다. **원시**는 대상의 정화된 재현보다는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한 반면에, 하이퍼리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부식을 적극 사용하며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 방법을 추구하였다.

18. 구분주의 인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하이퍼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작가에는 **원시**가 있다. 그의 작품 **『소경 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1938)는 물질적 풍요함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당시 현대인을 비관적 시각에서 표현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작품의 대상은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와 **여자**이다. 그녀는 **속박**의 주체이며 물질에 대한 **달욕**을 상징하고 있고,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는 **유망의 객체**이며 **물질**을 상징하고 있다. 그런데 여자가 **상품**이 넘칠 듯이 가득한 **쇼핑 카트**를 밀고 있는 무도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의 **괴상** 소비 상황을 보여 준다. **11-14** 이 작품의 개념을 **① 보편**, **② 관찰**뿐만 아니라 **전시**에도 자연스럽게 **도출** 작품을 **전시** 반할 때 **없이** 재현하였다. **자랑**을 보고 **11-15** 으로 형미를 만드는 방법 대신 **신발에** **직접**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11-96** **11-97** **11-98** **11-99** **11-100** **11-101** **11-102** **11-103** **11-104** **11-105** **11-106** **11-107** **11-108** **11-109** **11-110** **11-111** **11-112** **11-113** **11-114** **11-115** **11-116** **11-117** **11-118** **11-119** **11-120** **11-121** **11-122** **11-123** **11-124** **11-125** **11-126** **11-127** **11-128** **11-129** **11-130** **11-131** **11-132** **11-133** **11-134** **11-135** **11-136** **11-137** **11-138** **11-139** **11-140** **11-141** **11-142** **11-143** **11-144** **11-145** **11-146** **11-147** **11-148** **11-149** **11-150** **11-151** **11-152** **11-153** **11-154** **11-155** **11-156** **11-157** **11-158** **11-159** **11-160** **11-161** **11-162** **11-163** **11-164** **11-165** **11-166** **11-167** **11-168** **11-169** **11-170** **11-171** **11-172** **11-173** **11-174** **11-175** **11-176** **11-177** **11-178** **11-179** **11-180** **11-181** **11-182** **11-183** **11-184** **11-185** **11-186** **11-187** **11-188** **11-189** **11-190** **11-191** **11-192** **11-193** **11-194** **11-195** **11-196** **11-197** **11-198** **11-199** **11-200** **11-201** **11-202** **11-203** **11-204** **11-205** **11-206** **11-207** **11-208** **11-209** **11-210** **11-211** **11-212** **11-213** **11-214** **11-215** **11-216** **11-217** **11-218** **11-219** **11-220** **11-221** **11-222** **11-223** **11-224** **11-225** **11-226** **11-227** **11-228** **11-229** **11-230** **11-231** **11-232** **11-233** **11-234** **11-235** **11-236** **11-237** **11-238** **11-239** **11-240** **11-241** **11-242** **11-243** **11-244** **11-245** **11-246** **11-247** **11-248** **11-249** **11-250** **11-251** **11-252** **11-253** **11-254** **11-255** **11-256** **11-257** **11-258** **11-259** **11-260** **11-261** **11-262** **11-263** **11-264** **11-265** **11-266** **11-267** **11-268** **11-269** **11-270** **11-271** **11-272** **11-273** **11-274** **11-275** **11-276** **11-277** **11-278** **11-279** **11-280** **11-281** **11-282** **11-283** **11-284** **11-285** **11-286** **11-287** **11-288** **11-289** **11-290** **11-291** **11-292** **11-293** **11-294** **11-295** **11-296** **11-297** **11-298** **11-299** **11-300** **11-301** **11-302** **11-303** **11-304** **11-305** **11-306** **11-307** **11-308** **11-309** **11-310** **11-311** **11-312** **11-313** **11-314** **11-315** **11-316** **11-317** **11-318** **11-319** **11-320** **11-321** **11-322** **11-323** **11-324** **11-325** **11-326** **11-327** **11-328** **11-329** **11-330** **11-331** **11-332** **11-333** **11-334** **11-335** **11-336** **11-337** **11-338** **11-339** **11-340** **11-341** **11-342** **11-343** **11-344** **11-345** **11-346** **11-347** **11-348** **11-349** **11-350** **11-351** **11-352** **11-353** **11-354** **11-355** **11-356** **11-357** **11-358** **11-359** **11-360** **11-361** **11-362** **11-363** **11-364** **11-365** **11-366** **11-367** **11-368** **11-369** **11-370** **11-371** **11-372** **11-373** **11-374** **11-375** **11-376** **11-377** **11-378** **11-379** **11-380** **11-381** **11-382** **11-383** **11-384** **11-385** **11-386** **11-387** **11-388** **11-389** **11-390** **11-391** **11-392** **11-393** **11-394** **11-395** **11-396** **11-397** **11-398** **11-399** **11-400** **11-401** **11-402** **11-403** **11-404** **11-405** **11-406** **11-407** **11-408** **11-409** **11-410** **11-411** **11-412** **11-413** **11-414** **11-415** **11-416** **11-417** **11-418** **11-419** **11-420** **11-421** **11-422** **11-423** **11-424** **11-425** **11-426** **11-427** **11-428** **11-429** **11-430** **11-431** **11-432** **11-433** **11-434** **11-435** **11-436** **11-437** **11-438** **11-439** **11-440** **11-441** **11-442** **11-443** **11-444** **11-445** **11-446** **11-447** **11-448** **11-449** **11-450** **11-451** **11-452** **11-453** **11-454** **11-455** **11-456** **11-457** **11-458** **11-459** **11-460** **11-461** **11-462** **11-463** **11-464** **11-465** **11-466** **11-467** **11-468** **11-469** **11-470** **11-471** **11-472** **11-473** **11-474** **11-475** **11-476** **11-477** **11-478** **11-479** **11-480** **11-481** **11-482** **11-483** **11-484** **11-485** **11-486** **11-487** **11-488** **11-489** **11-490** **11-491** **11-492** **11-493** **11-494** **11-495** **11-496** **11-497** **11-498** **11-499** **11-500** **11-501** **11-502** **11-503** **11-504** **11-505** **11-506** **11-507** **11-508** **11-509** **11-510** **11-511** **11-512** **11-513** **11-514** **11-515** **11-516** **11-517** **11-518** **11-519** **11-520** **11-521** **11-522** **11-523** **11-524** **11-525** **11-526** **11-527** **11-528** **11-529** **11-530** **11-531** **11-532** **11-533** **11-534** **11-535** **11-536** **11-537** **11-538** **11-539** **11-540** **11-541** **11-542** **11-543** **11-544** **11-545** **11-546** **11-547** **11-548** **11-549** **11-550** **11-551** **11-552** **11-553** **11-554** **11-555** **11-556** **11-557** **11-558** **11-559** **11-560** **11-561** **11-562** **11-563** **11-564** **11-565** **11-566** **11-567** **11-568** **11-569** **11-570** **11-571** **11-572** **11-573** **11-574** **11-575** **11-576** **11-577** **11-578** **11-579** **11-580** **11-581** **11-582** **11-583** **11-584** **11-585** **11-586** **11-587** **11-588** **11-589** **11-590** **11-591** **11-592** **11-593** **11-594** **11-595** **11-596** **11-597** **11-598** **11-599** **11-600** **11-601** **11-602** **11-603** **11-604** **11-605** **11-606** **11-607** **11-608** **11-609** **11-610** **11-611** **11-612** **11-613** **11-614** **11-615** **11-616** **11-617** **11-618** **11-619** **11-620** **11-621** **11-622** **11-623** **11-624** **11-625** **11-626** **11-627** **11-628** **11-629** **11-630** **11-631** **11-632** **11-633** **11-634** **11-635** **11-636** **11-637** **11-638** **11-639** **11-640** **11-641** **11-642** **11-643** **11-644** **11-645** **11-646** **11-647** **11-648** **11-649** **11-650** **11-651** **11-652** **11-653** **11-654** **11-655** **11-656** **11-657** **11-658** **11-659** **11-660** **11-661** **11-662** **11-663** **11-664** **11-665** **11-666** **11-667** **11-668** **11-669** **11-670** **11-671** **11-672** **11-673** **11-674** **11-675** **11-676** **11-677** **11-678** **11-679** **11-680** **11-681** **11-682** **11-683** **11-684** **11-685** **11-686** **11-687** **11-688** **11-689** **11-690** **11-691** **11-692** **11-693** **11-694** **11-695** **11-696** **11-697** **11-698** **11-699** **11-700** **11-701** **11-702** **11-703** **11-704** **11-705** **11-706** **11-707** **11-708** **11-709** **11-710** **11-711** **11-712** **11-713** **11-714** **11-715** **11-716** **11-717** **11-718** **11-719** **11-720** **11-721** **11-722** **11-723** **11-724** **11-725** **11-726** **11-727** **11-728** **11-729** **11-730** **11-731** **11-732** **11-733** **11-734** **11-735** **11-736** **11-737** **11-738** **11-739** **11-740** **11-741** **11-742** **11-743** **11-744** **11-745** **11-746** **11-747** **11-748** **11-749** **11-750** **11-751** **11-752** **11-753** **11-754** **11-755** **11-756** **11-757** **11-758** **11-759** **11-760** **11-761** **11-762** **11-763** **11-764** **11-765** **11-766** **11-767** **11-768** **11-769** **11-770** **11-771** **11-772** **11-773** **11-774** **11-775** **11-776** **11-777** **11-778** **11-779** **11-780** **11-781** **11-782** **11-783** **11-784** **11-785** **11-786** **11-787** **11-788** **11-789** **11-790** **11-791** **11-792** **11-793** **11-794** **11-795** **11-796** **11-797** **11-798** **11-799** **11-800** **11-801** **11-802** **11-803** **11-804** **11-805** **11-806** **11-807** **11-808** **11-809** **11-810** **11-811** **11-812** **11-813** **11-814** **11-815** **11-816** **11-817** **11-818** **11-819** **11-820** **11-821** **11-822** **11-823** **11-824** **11-825** **11-826** **11-827** **11-828** **11-829** **11-830** **11-831** **11-832** **11-833** **11-834** **11-835** **11-836** **11-837** **11-838** **11-839** **11-840** **11-841** **11-842** **11-843** **11-844** **11-845** **11-846** **11-847** **11-848** **11-849** **11-850** **11-851** **11-852** **11-853** **11-854** **11-855** **11-856** **11-857** **11-858** **11-859** **11-860** **11-861** **11-862** **11-863** **11-864** **11-865** **11-866** **11-867** **11-868** **11-869** **11-870** **11-871** **11-872** **11-873** **11-874** **11-875** **11-876** **11-877** **11-878** **11-879** **11-880** **11-881** **11-882** **11-883** **11-884** **11-885** **11-886** **11-887** **11-888** **11-889** **11-890** **11-891** **11-892** **11-893** **11-894** **11-895** **11-896** **11-897** **11-898** **11-899** **11-900** **11-901** **11-902** **11-903** **11-904** **11-905** **11-906** **11-907** **11-908** **11-909** **11-910** **11-911** **11-912** **11-913** **11-914** **11-915** **11-916** **11-917** **11-918** **11-919** **11-920** **11-921** **11-922** **11-923** **11-924** **11-925** **11-926** **11-927** **11-928** **11-929** **11-930** **11-931** **11-932** **11-933** **11-934** **11-935** **11-936** **11-937** **11-938** **11-939** **11-940** **11-941** **11-942** **11-943** **11-944** **11-945** **11-946** **11-947** **11-948** **11-949** **11-950** **11-951** **11-952** **11-953** **11-954** **11-955** **11-956** **11-957** **11-958** **11-959** **11-960** **11-961** **11-962** **11-963** **11-964** **11-965**

2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동경한 공간에서 사물의 교감하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삶의 여정의 구도적 공간인 '길'에서 이상 세계인 '하늘'을 지향하는 소망을 드러낸다. (나)의 화자는 만남의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 심미적 공간인 '마담'에서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충만한 정서를 드러낸다.

㉠ (가)의 화자는 '폴리타니스와 '걸이' 걷는 모습에서' (나)의 화자는 '흰 풀의 '유달린' 고운 '이마'를 알아채는 모습에서' 사물과의 교감을 보여 주는군.

㉡ (가)의 화자는 '어느 날에 이른 파장을 통해 삶의 여정을 드러내고' (나)의 화자는 '한밤'에 '달'을 쳐릴 띠려운 달빛을 통해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군.

㉢ (가)의 '삶은 화자의 '하늘'을 잇는 매개체로서' 이상 세계의 실현을/ (나)의 '영상은 화자의 내면의 외부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서' 화자의 단절감을 상징하는군. 만남은 마담에게... (가)는 '반역'이란 '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의 아름다움' (나)는 '치고 넘치는 '호수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마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군.

㉣ (가)의 화자는 '폴리타니스와 '이웃'이 되어 구도의 '길'을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의 화자는 '오동' 찾아 '뭇 건디개' 땅그림'도 포획하여 자연에 대한 감응을 드러내는군.

[23~2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 노인: (화단 쪽을 가리키며) 저기 심어 놓은 화초며 고추 묘가 도무적 자라질 않는데 말이야! 아까도 물어다보니까 고추 묘에서 꽃이 핀 지는 벌써 오래전인데 열매가 열리지 않잖아!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해 봤더니 저 멧없는 것이 화수로 단 물이 편아서 해법을 가렸으니 어디 자라랴! 최경이 어머나 저 이따간 땅에서 싹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게다! 순알새야 말세!

이때 경계 세복을 차려 입고 화을 들고 나와서 신을 신다가 아버지의 이야기가 듣고는 깔깔대고 웃는다.

경제: 원 아저씨두.....

최 노인: 이눔이 뭐가 우스워?

경제: 지금 세상에 말의 집 고추 밭을 넘어다보며 짐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

최 노인: ㉠ 왜삼에 그렇게 않았어!

경제: 지난 일이 오늘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은 오름이지, ㉡ (오름엔 열쇠의 종을 내며) 열쇠는 강처럼 설 세 없이 흐르고 인생은 편구덩처럼 빈회무쌍하더라는 이 엄연한 사실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꼭바로 붙 붙 이는 사람만이

최 노인: 이눔이! ㉢ 누가 이 짐을 편다고 했어? 응? 경수: 아니 그럼 이 짐을 외치는 게 아니면 뭐 허러 부덕방 음.....

최 노인: 저런 할개 배진 녀석 왔나 아니 내가 뭇 때문에 이 짐을 편아? 응? 음이 네놈 취적 자분을 데기 위해서? 응?

최 노인: 아니 그럼 이백오십만 원이란 무슨 얘길나까?

최 노인: 네 따위 놈을 위해서 저나 남은 걸다져 편이아만 속이 시원하겠나? 전세로 욕 개얼탄 내놓겠더라는 거야!

경수: 예? 전세리구요?

최 노인: ㉣ (어머나의 경음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다.) ㉡-㉣

최 노인: 왜 아주 안 파는 게 양에 안 취지? 이눔아! 이 애라가 집도 채도 없는 거지가 되어서 죽는 꼴이 그렇게도 보고포나?

8 16

주요역량!

초범석, 「물모지」(수능특강) 해제 이 작품은 전 2막으로 이루어진 장막 연극으로, 1950년대 서울 홍익가를 배경으로 빈민층으로 생활하는 원리문화와 한복으로 인형되는 전통문화의 상징으로 다루는 근로 사회의 문제를 비판하고 정의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작품의 제목인 「물모지」는 구세주는 물을 신세에도 흔들하게 부린다리지 못하는 파도기적 시기로서 정신적·경제적으로 피폐한 1950년대의 한국 사회를 상징한다. 연극 시대 변 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최 노인 가족의 비극적인 생활을 통해 근대화 과정에서 비롯된 가족 해체와 가치관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그려 낸 세대 고발적인 성격이 강한 사실주의 작품이다. 주제 근대화 과정에서 겪는 가족의 해체와 가치관의 변화.

전체 줄거리

근구 대어장을 운영하는 최 노인은 변화한 시기에 자라난 자신의 넓은 한복에 대해 지나친 집착을 보인다. 신식 생활의 성향으로 전통 문화를 친구들 대어하는 최 노인의 가문은 보통 기층이기는 상층에서 가족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짐을 팔지도 중용하지만 최 노인은 완강히 버틴다. 제대 군인으로 실업자 신세인 큰아들 경수는 그런 아들들을 영려하는 어머니, 허영심 많은 배우 지방생 장녀 경애, 인내심의 사치관으로 가족의 생계를 떠맡고 있는 처녀 경은, 대학 진학을 앞둔 민내이를 경제 등 가족 모두가 각각의 현실적인 입장에 따라 강등을 드러낸다. 결국 최 노인은 짐을 세늘기로 결심하는데, 아버지가 짐을 팔려는 것으로 오해한 경수가 아들 막으려 하고 이는 최 노인과의 다툼으로 이어진다. 모든 불화의 원인이 돈에 있다고 생각한 경수는 총을 들고 나가 보석상을 털러다. 미수에 그치고, 뒤늦게 남아은 취업을 지서는 무용자들이 된다. 한편 배우 지방생인 경애는 상사 위 영을 시청한 시가문에 게 시기를 당하지 총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다. 형사들에게 이들이 체포되어 미단 후 말의 시체를 발견한 최 노인의 비밀한 정과 형개 막이 나란다.



지문분석

22. <설화>

→ 방법: 선택적 관의 의기.

→ 가 / 나 / 나 / 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 가: ㉠ <나> 내용이 화의

지문분석

국어 영역

경수: (당황하며) 아버지 아니에요 저는..... ㄱ-㉓

최 노인: 아니면 께침이냐?

어머니: ㉔연보 그럼 집을 전세로 줘서 몇 하세요? ㄱ-㉔

최 노인: 끝째 아가 어린 친구 예기가 요즘 그 실내에서 하는 그 뭐더라 '샤플보드'라든가.....

경수: '샤플보드' 말씀이요?

최 노인: 그래 '샤플보드' 말이다. 그건 차리는 데 돈도 안 들고 수입이 괜찮다고 하면서 4거에 적당한 집이 있다기에 그걸 레 붙까 하꼬 이 집을 보았지. 그제 예기가 꺾이 막아 가는 편인데 끝째 다 되어 간 음식이 로 매치기로 저 녀석이.....

어머니: 아니 그럼 전세로 이백오십만 환이린 말인가요?

최 노인: 그렇지 저 기계만 해도 백만 환은 받을 수 있어!

어머니: 그런 걸 가지고 나는 왜..... ㄱ-㉔

최 노인: 뭐가 왜하냐?

경수: ㉕아버지께서 이 집을 관음실 줄만 받았어요. ㄱ-㉔

최 노인: 흥! 너희들은 모두 한숨이 되어서 어찌든지 내 일을 안 피게 하꼬 이 집을 남의 머뭇 두리둥란 하고 있구나라! 이 관음에 쫓편 것들 (하며 불쑥 일어선다.)

어머니: 그런 미끼 있겠어요? 언니.....

최 노인: 듣기 싫어! (화초판으로 나오며) 이 집안에서는 되는 거라면 하나도 없애! 온한 헛발도 안 드는 집이 꺾이 된단 말이야! 꺾이 돼! (하며 화초판을 함부로 작진시킨 것뻘고 뽀아 해친다.)

어머니: ㉖(멘발로 뛰어나러!) 어보 이게 무슨 것이요! 그렇게 정신을 들여서 가진 것들을..... 원..... 당신도.....

최 노인: 내가 정신을 안 들인 게 뭐가 있어..... 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들였지만 안 되지 양이! 하나도 색도 말아님! ㄱ-㉕ - 차법석, 『불포기』

*샤플보드(shuffleboard): 오락의 한 종류.

23. 뒷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㉑ 언어유희를 통해/인물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 ㉒ 장편의 전환을 통해/각 인물의 내면이 부각되고 있다.
- ㉓ 인물들의 배경을 통해/인물들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㉔ 인물의 등퇴장을 통해/인물의 성격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㉕ 실제 지명의 노출을 통해/극중 상황에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24.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㉑ ㉑: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최 노인'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㉒ ㉒: '경제'의 말에 주목하게 하는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 ㉓ ㉓: 호칭을 달리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최 노인'의 노력이 드러나 있다.
- ㉔ ㉔: 두 인물이 '경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동시에 확인하고 있다.
- ㉕ ㉕: 어머니의 다급한 심리를 행동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25. <보기>와 ㉑~㉔를 관련지어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발견』이란 인물이 극의 전개 과정에서 사건의 승격된 측면을 암시하려는 계기를 드러내는 기법이다. 『발견』의 대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몰랐던 사실이나 새로운 가치, 인물의 다른 면 등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기도 하고 인물들의 갈등 양상이 변모되기도 한다.

- ㉑ '경제'는 ㉑를 통해 '최 노인'이 예전과 달라진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최 노인'에게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드러내는군.
- ㉒ '북덕방'은 ㉑를 통해 '경수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최 노인'과의 흥정을 중지하게 되는데, '경수'는 ㉑를 통해 '최 노인'이 집을 팔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최 노인'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는군.
- ㉓ '최 노인'은 ㉑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어머니'가 무리하게 반대하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게 되는군'.
- ㉔ '최 노인'은 ㉑를 통해 집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경수'의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가족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군'.

26. 『화초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㉑ 경제적 안정에 대한 가족들의 '꺾이'가 드러나는 장소이다.
- ㉒ 중심인물이 '전을 차리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장소이다.
- ㉓ 두 인물의 상반된 행동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장소이다.
- ㉔ 중심인물이 '현재'의 고통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자책하는 장소이다.
- ㉕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여 허망해하는 중심인물의 감정이 드러나는 장소이다.

문양분석

23. <문양> → <표>

→ 개념어 보는 것 반드시 전경!

㉑ 언어유희 ㉒ 장편의 전환 ㉓ (시 공간 전환)

24. <간접지시 차근>

∴ 인물의 대사, 행동 → 인물의 심리, 태도 차근

→ 문맥 (말투) 을 통한 이해가 필요!

㉕ 예배, 경도 → 줄다 짐을 피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전세'라는 말에 놀람, 쿨은 '어깨'라는 말에

25. <심리 감상> ∴ '선' 색(가) 없애고 24번처럼

인물의 대사, 행동 → 인물의 심리, 태도 차근으로 풀이.

㉑ <수용 피력> 선반 문학 <생기> 행동 방향

→ 선택지: 자물 + 선택 > 인데 <자물+선택>을 틀리게 해

26. <관의 상징적 의미>

→ '화초판'의 '상징적 의미' 보 '집'의 '상징적 의미'를 물어봤으면 각 중요도 톡!

10

국어 영역

127~32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1 **모건 역학적** 관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예측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12 미시 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바지를 5개의 팽이를 생각해 보자.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⑤알게 되는 것뿐이다. 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의 팽이가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다. 거시 세계와 달리 양자 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인슈타인은 “그렇다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는가?”라는 말로 양자 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13 최근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초고속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잘 보여 주는 예다 할 수 있다. 마치 세계에 대한 이러한 연구 성과는 거시 세계에 대해 우리가 지인스럽게 인지하게 될 상식적인 생각들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거나, 이와 비슷한 의문은 논리학에서도 볼 수 있다.

14 **모건 논리**는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있는 이치 논리이다. 그리고 모건 논리에서는 어떠한 진술이 참 ‘참’ 또는 ‘거짓’이다. 이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같 **참** 들어맞는다. 그러나 **프로스트**에 따르면,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한다. 거짓말쟁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지시적 문장**과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구분해 보자. **자기 지시적 문장**은 만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 문장은 모두 열여덟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참인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몇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고 있다. **참**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다.”라는 ‘참’인 문장은 페루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할 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은 아니다.

15 “이 문장을 거짓이다.”는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이는 ‘이 문장이 참인 표현이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다’고 말하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그렇다면 프로스트는 왜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이해되기 위해 **순진** 거짓말쟁이 문장이 ‘참’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참** 거짓말쟁이 문장이 ‘거짓’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문장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프로스트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이다. **참**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그는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은 이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16 모건 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직관 문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프로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교적 논리 중 하나인 **IP**를 제시하였다. **참** IP에서는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진진 긍정 규칙**은 **참** 들어 생각해 보자. 모건 논리에서는 진진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이는 **참** IP이면 **참**이다. ‘참’은 조건문과 그것의 진건인 P가 ‘참’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IP에서 진진 긍정 규칙이 성립 하려면, 조건문과 그것의 진건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 **참** IP에서 조건문의 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건은 ‘거짓’이 된다. 비록 진진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IP는 모건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

* IP: ‘역설의 논리(Llogic of Paradox)’의 약자.

27. 문제를 고려했 때 ⑤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많은 사람들이 항상 달을 관찰하고 있으므로 달이 존재한다.
 ㉡ 달은 질량이 매우 큰 거시 세계의 물체이므로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 달은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므로 누군가 달을 관찰하기 이전에도 존재한다.
 ㉣ 달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존재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
 ㉤ 달이 있을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이 반반이므로 관찰 이후에 달이 있을 가능성은 반이다.

21. <전제 풀이>
 이치역사 = 관찰 전이 팽이의 회전 방향 안수 X.
 → 이치역사인 → 때: 관찰 X → 한 관측 → 다른 관측에 달이 존재한다.
 (관찰) 위해서



문항 분석



지문 분석

11 **이치역사**
 → 상호 배타적 상태 - 공존
 ㉠ 미시세계 - 두 상태가 공존
 → 관찰은 둘을 회전 방향 결정
 ← 이치역사인: 회전적.
 ㉡ + 양자 컴퓨터 연구
 → 논리학 상도 맞음.
 ㉢ **프로스트**: 거짓말쟁이 문장
 ⇒ 참인 동시에 거짓.
 ㉤ 거짓말쟁이 문장
 = 자기 지시적 문장
 + 참인 동시에 거짓
 (상호 배타적 상태가 공존)
 14 **IP**: 비교 논리.
 → 진진 긍정 규칙 성립 X.
 ㉠은 구조: 기호(4경) 7경.
 전개 방식: 대조, 예시.